

#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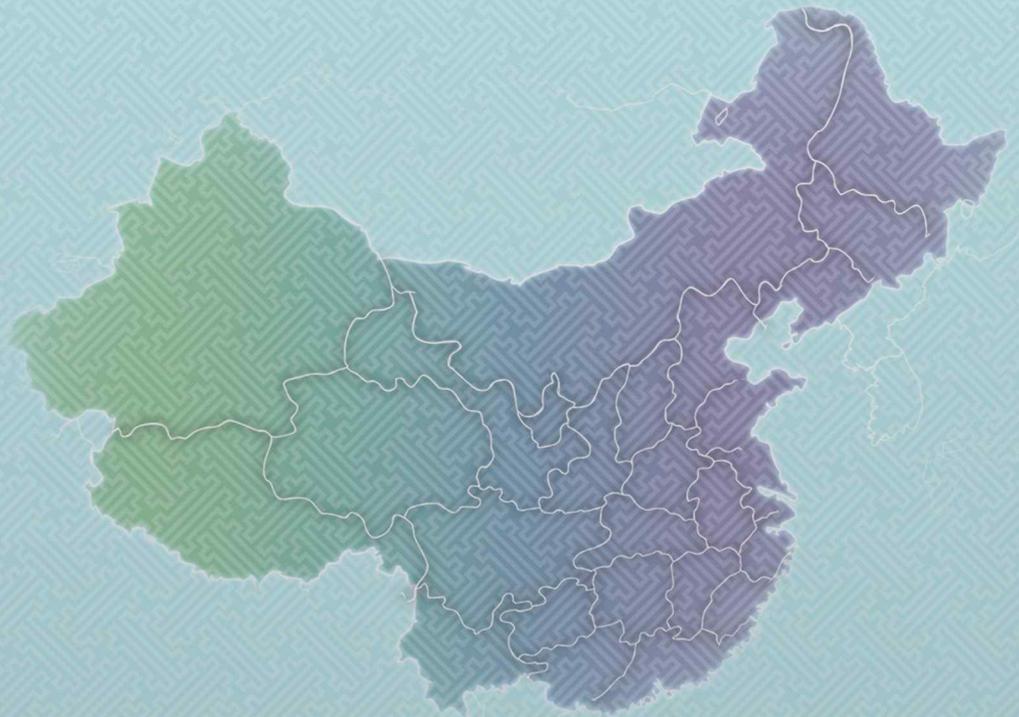
2012년 3월 21일 | Vol. 3 No. 3

ISSN 2093-3282

## 광둥(廣東)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및 추진 동향

**김홍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hwkim@kiep.go.kr, Tel: 3460-1278)

**정지현**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jhjung@kiep.go.kr, Tel: 3460-1280)



## 차 례 ●●●

- 1. 개요
- 2. 발전계획
- 3. 추진 동향
- 4.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광둥성은 12·5규획 시기(2011~15년) 산업고도화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LED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광둥성은 중국 경제개혁의 시범지역으로 개혁·개방 이래 경제규모가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2011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우리나라 2010년 GDP의 80%에 달함.
  - 광둥성은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LED,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등 8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정하고, 가공무역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임.
  
- ▣ 광둥성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및 발전촉진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음.

  - 광둥성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총생산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으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점기업 육성,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광둥성은 최근 40개 산업단지, 53개 R&D 지원목록을 선정하고, 3대 중점 육성산업인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LED의 기술표준체계 및 로드맵을 발표함.
  
- ▣ 한국은 광둥성과 차세대 IT, LED 등의 영역에서 기술협력, 인적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유출과 무역보호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광둥성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기반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관련 연구인력이 부족함.
  - 우리나라는 기술경쟁우위가 있는 차세대 IT, LED 등의 분야에서 광둥성과 협력이 기대되나 IT·전자 업종의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일부 제품에 대해 자국시장과 기업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어 기술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1. 개요

■ 광둥성은 중국 경제개혁의 시범지역으로, 개혁개방 이래 경제규모가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현재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기에 놓여 있음.

- 광둥성은 중국 경제·사회 개혁의 시험대 역할을 해온 지역으로서, 특히 중국 연해지역의 발전모델이 되어 왔음.
- 광둥성은 중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성(省)으로, 2011년 GRDP(지역내총생산)는 약 5조 3천억 위안(약 8,405억 달러)에 달해 23년간 연속 1위를 유지하였음.<sup>1)</sup>
- 12차 5개년 계획 시기(2011~15년) 광둥성 발전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행복한 광둥’임. 광둥성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대중의 복지향상을 통해 ‘행복한 광둥’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임.<sup>2)</sup>
  - ‘행복한 광둥’은 광둥성 12차 5개년 계획에 언급되었으며, 광둥성 정부는 2011년 지역별 ‘행복 지수’를 발표하여 정부 운영평가 시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민생 복지를 고려한 질적인 요소를 반영함.

■ 2010년 광둥성은 8대 전략적 신흥산업<sup>3)</sup>을 선정하고, 이 중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EV), LED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함.

- 광둥성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의 범주 내에서 8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방향을 수립함.<sup>4)</sup>
  - 8대 산업에는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LED,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산업이 포함됨.
  - 이 중에서 중점적인 산업은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LED 산업이며, 전략적 신흥산업의 범주는 우리나라의 17대 신성장 동력산업과 중복되므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1) 참고로 광둥성 1인당 GRDP는 5만 500위안(약 8천 달러)임. 자료: 吴爱平 外(2012. 1. 18), 「今年是加快转型升级建设幸福广东的关键之年」, 『南方日报』; 『南方都市报』(2011. 1. 23), 「2010年广东GDP45472.83亿元连续22年全国第一」.

2) 정지현(2011),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광둥(廣東)성」,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제11-0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2010년 중국 국무원은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발전 잠재력이 큰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신흥산업(战略性新兴产业)’이라 칭하고,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방향을 발표하였음. 광둥성의 전략적 신흥산업은 8개로 분류되는데, 이는 신산업의 추가가 아니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에 포함되는 LED 산업을 중점 육성시키기 위해 분리하여 나열하였기 때문임.

4) 广东省人民政府(2011. 7. 20), 「关于贯彻落实国务院部署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意见」.

## 2. 발전계획

■ 광둥성 1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5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총생산액 목표는 현재(1조 3천억 위안)의 2배 수준인 2조 5천억 위안임.

-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GRDP 대비 비중이 2015년에는 10%, 2020년에는 16%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sup>5)</sup>

■ 광둥성 정부는 2010~15년(12·5규획 기간) 동안 기술개발, 기업 육성·투자,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220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임.

- 22억 위안 가운데 정부·은행·기업 협력에 50억 위안, 핵심기술 R&D 지원에 30억 위안, 벤처캐피털 조성에 30억 위안 등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투자 등에 지원될 계획임.<sup>6)</sup>

○ 정부·은행·기업 협력자금은 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항목으로, 관련 부처 심의를 거친 기업이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광둥성 정부가 원금의 이자를 지원함.

○ R&D 지원자금은 특허 등록과 상업화 가능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기술 상용화 후 국내 산업생태계의 공백을 메워 제품의 국산화를 달성하도록 함.<sup>7)</sup>

- 구체적으로 각 산업별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기술표준을 제정하며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 있는 기업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 또한 3~5개의 산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생산규모 1,000억 위안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해당 산업단지의 생산규모가 광둥성 전체 전략적 신흥산업의 60% 이상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1년 광둥성 경제정보화위원회(經濟和信息化委員會)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안이 포함된 ‘광둥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방안(이하 ‘촉진방안’)’을 발표함(표 1 참고).

- ‘촉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발전계획 수립, 산업클러스터 조성, 중점기업 육성, 투자 프로젝트 추진, R&D 지원, 투자유치 등에 대한 추진방안임.

- 이는 광둥성 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 총괄하며 부처 내 관련 부서인 혁신처(創新處)에서 전체 사업계

5) 广东省人民政府(2011. 7. 20), 「关于贯彻落实国务院部署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意见」.

6) 广东省财政厅(2011. 7. 14), 「关于印发《广东省战略性新兴产业政银企合作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的通知」; 香倩(2011. 9. 1), 「各省如何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 桂经网(www.gxi.gov.cn).

7) 广东省财政厅(2010. 10. 20), 「关于印发《战略性新兴产业发展专项资金(省财政安排)竞争性分配实施方案》的通知」.

획 및 안배를 담당함. 해당 산업별로 전자처(電子處), 소프트웨어·정보처(軟信處)등 관련 부문에서 개별 사업계획을 이행함<sup>8)</sup>

- 구체적으로 혁신처는 전략적 신흥산업의 12·5규획과 성(省)급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지역 중점기업 육성, 투자유치를 전담함.

표 1. 2011년 광둥성 전략적 신흥산업 추진안

분류	추진 과제 명칭	시기	주관 부서	
1	발전계획 수립 ·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전략적 신흥 산업 12·5계획	2011년 상반기	혁신처
		차세대 IT 발전계획	2011년 상반기	혁신처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발전계획	2011년 상반기	에너지절감순환처
		신소재 산업 발전계획	2011년 상반기	원자재처
		우주항공 산업 발전계획	2011년 상반기	기술개선처
		태양광산업 발전계획	2011년 상반기	전자처
	제 1차 산업발전촉진정책 제정	2011년	원자재처, 장비처, 소프트웨어·정보처, 정보화추진처	
2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성급 산업단지 계획 · 건설	2011년 상반기	혁신처 등
		국가급 산업단지 건설 지원	2011년	혁신처, 전자처, 소프트웨어·정보처
3	중점기업 육성	50개 전략적 신흥 산업 기업 추가선정 및 지원	2011년	혁신처 등
		소프트웨어 · 집적회로설계 100대 기업 육성	2011년	소프트웨어 · 정보처
4	투자 프로젝트 추진	차세대 LCD 패널 생산라인 사업	2011년	전자처
		디지털홈네트워크 사업	2011년	전자처
		무선통신기기 산업가치사슬 고도화	2011년	전자처
		브로드밴드 차세대 이동통신망 건설	2011년	무선처
		‘스마트 광둥(廣東)’ 사물인터넷 사업	2011년	정보화추진처
		경전철교통장비 사업	2011년	장비처, 산업단지처
		선박 및 해양엔지니어링장비 사업	2011년	장비처, 기술개선처
		항공 산업	2011년	기술개선처
5	R&D 지원	태양광산업	2011년	전자처
		디지털홈 · 디지털TV(국가급)	2011년	전자처
		IT서비스	2011년	소프트웨어 · 정보처
		브로드밴드 차세대 이동통신망(국가급)	2011년	무선처
		태양광기술*	2011년	전자처
6	투자유치	첨단 장비제조	2011년	장비처
		중점프로젝트 투자유치	2011년 상반기	혁신처 등
		민간자본 투자유치	2011년	중소기업국 기술진보처

주: \* 태양광기술에 대한 R&D 지원은 박막 태양전지 및 생산설비 제조기술, 박막증착(Evaporation) 공정 및 설비기술, 레이저 에칭(Laser etching) 공정설비 제조기술, 검측설비 제조기술 개발 등 제조설비의 국산화 관련 기술이 다수 포함됨.

자료: 广东省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1. 3. 10), 「广东省2011年促进战略性新兴产业加快发展行动方案」.

8) 그 외 관련 부서로 정보화추진처(信息化推进处), 무선통신처(无线处), 교통전비관(交通战备办), 에너지절감순환처(节能循环处), 원자재처(原材料处), 장비처(装备处), 기술개선처(技改处), 산업단지처(工业园处)등이 있음.

- ‘촉진방안’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중점기업 육성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산업 클러스터는 성(省)정부의 주관부처(經濟和信息化委員會)와 시(市)정부가 협력하여 개발하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음.
- 또한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성정부가 협력하여 국가급 전략적 신흥산업 시범단지 개발을 추진하며, 특히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을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실제로 2010년 중앙정부 부처인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와 광둥성 정부는 포산(佛山)시 순더(順德)구에 OLED 산업 시범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였음.<sup>9)</sup>
- 소프트웨어·집적회로 설계 분야의 100대 기업을 육성하되, 특히 집적회로 설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IT 솔루션, 미들웨어를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함.

### 3. 추진 동향

- 광둥성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클러스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해당 분야 기업이 주축(主軸)이 되는 방식과 광둥성 경제정보화위원회와 해당 시정부가 공동 조성하는 방식이 있음.
- 2011년 12월 광둥성 정부는 각 업종별 선도기업과 산업단지를 일대일로 매칭시킨 전략적 신흥산업단지 목록을 발표하였음(그림 1 참고).<sup>10)</sup> 해당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이 집적됨에 따라 클러스터가 조성됨.
- 선정된 총 23개 산업단지는 지역적으로 선전시와 포산(佛山)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LED가 다수를 차지함.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단지는 각각 △ 광저우시-광저우자동차(廣汽集團) △ 선전시-BYD(比亞迪) △ 포산시-루디광저우(陸地方舟) △ 중산(中山)시-다양모터(大洋電機)가 중심이 되어 조성됨.
- LED 산업단지는 각각 △ 포산시-귀성광전(國星光電) △ 둥관(東莞)시-친상광전(勤上光電) △ 후이저우(惠州)시-위안후이광전(元暉光電)이 중심이 되어 조성됨.
- 2011년 11월 광둥성 경제정보화위원회는 17개의 성시(省市)공동개발산업단지 목록을 발표함. 산업단지 조성은 양측이 공동으로 진행하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경비는 시정부에서 부담함.<sup>11)</sup>

9) 谢思佳(2010. 2. 2), 「全国首个部省共建OLED产业示范基地落户广东」, 『南方日报』.

10) 广东省人民政府(2011. 12. 31), 「关于公布第一批广东省战略性新兴产业基地名单的通知」.

11) 广东省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1. 7. 29), 「关于公布2011年省市共建战略性新兴产业基地名单的通知」.

그림 1. 광둥성 전략적 신흥산업단지의 지역별 분포



주: 광저우, 선전, 둥관, 포산, 후이저우, 중산, 주하이, 장먼은 주정삼각주(9개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임.  
 자료: 저자 작성.

○ 16개 시정부가 신청한 27개 계획안 중 17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중 광저우 텐허(天河)소프트웨어단지, 포산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단지, 포산 산웨이(三水)태양광단지 등이 대표적임.

■ 바이오의약·제약, 첨단 IT,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R&D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인재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11년 10월 광둥성 과학기술청(科技廳)과 재정청(財政廳)이 공동으로 제1차 전략적 신흥산업 핵심 기술개발 목록을 발표함.<sup>12)</sup>

○ 산학연(産學研)이 공동으로 총 53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제약 관련연구가 12개, 첨단 IT 9개, 신소재 9개, 신에너지 8개, 전기자동차 5개, 첨단제조 5개, 환경보호 4개, 항공 1개임.

○ 이 중 첨단 IT 분야에는 GPS 칩 핵심기술 및 상업화, 메타 소재·무선주파수(RF) 장치 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및 전자정부 분야 활용기술, 4.5세대 AMOLED 패널 및 3D 입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등이 포함되고, 전기자동차 분야에는 리튬인산철(LiFePo4) 배터리 소재, 전해액 연구 및 상업화 등이 포함됨.

12) 广东省科学技术厅(2011), 「广东省第一批战略性新兴产业核心技术攻关拟立项项目公示」.

- 광둥성은 2010~11년 2년간 31개 기술연구팀과 31명의 연구인력을 유치하였음. 광둥성 정부는 연구팀에 최소 1,000만 위안에서 최대 1억 위안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며, 연구원 1명당 500만 위안의 연구비와 100만 위안의 주거보조금을 지원함.<sup>13)</sup>

■ 또한 산업기술 표준체계를 수립하여 기술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 보급과 확산 활동을 지원함.<sup>14)</sup>

- 2012년 1월 광둥성 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은 각각 LED 조명, 전기자동차, 첨단 IT 산업 관련 표준체계 계획 및 로드맵(2011~15년) 발표회를 가짐.
- 특히 LED 분야에서 광둥성 품질기술감독국은 2009년부터 약 2년간 국가표준관리위원회(國家標準管理委員會)와 협력하여 30여 항의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을 제정하였음.<sup>15)</sup>
- ‘광둥성 LED 조명산업 표준체계 계획 및 로드맵(廣東省LED照明產業標準體系規劃與路線圖)’은 광둥성 품질기술감독국의 산하 연구기관인 ‘광둥성 표준화연구원(廣東省標準化研究院)’과 과학기술청이 공동으로 연구하였고, 20여 차례 연구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음.

■ 광둥성은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중앙국유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구사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향후 중앙국유기업은 특히 광둥성과 상하이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sup>16)</sup>
  - 중국전자물자사(中國電子物資總公司, CEMC)<sup>17)</sup>는 지역 로컬기업인 선전장청개발사(深圳長城開發), 중국전자장비사(中電器材深圳有限公司) 및 광둥성 정부와 협력하여 첨단 IT 관련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임.
  - 중국원자력산업그룹(中國核工業集團), 중국광둥원전그룹(中國廣東核電集團)은 광둥성에 원자로 건설과 관련된 장비제조를 확대할 계획임.

13) 深圳政府在线(2011. 8. 22), 「广东省“十二五”期间人才引进情况( 기자회견 내용)」.

14) 广东省局标准化处, 省标准化研究院(2012. 1 11), 「我省首次发布LED照明标准体系与路线图」, 广东省质量技术监督局 ([www.gdqts.gov.cn](http://www.gdqts.gov.cn)).

15) 국가표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기술요건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에서 관리함. 산업표준은 국가표준이 없고, 전국 특정 산업범위에서 통일해야 할 기술요건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며, 산업표준 관리부서에서 관리함. 산업표준은 상응한 국가표준이 제정된 후 즉시 폐지됨. 한중 표준화 플랫폼 (<http://china-korea.standards-portal.cn>, 검색일: 2012. 3. 16).

16) 龙金光(2012. 1. 18), 「央企大举布局战略性新兴产业 七板块为投资重点」, 『南方都市报』.

17) 중국전자물자사는 중앙국유기업인 중국전자정보그룹(中國電子信息產業集團, CEC)의 자회사임.

- 광둥성 정부는 신흥산업 분야에 기술우위가 있는 일본과의 기술협력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sup>18)</sup>
- 2011년 7월 일본 도쿄에서 ‘광둥성 주장삼각주 지역과 일본의 경제무역합작교류회(廣東省珠三角地區與日本經貿合作交流會)’가 개최되었으며, 자동차, 반도체, LCD, LED,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IT 등 분야의 700여 명이 참석함.

## 4. 평가 및 시사점

■ 광둥성은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기반을 재편하기 위해 기술개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관련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임.<sup>19)</sup>

- 광둥성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상당수의 연구인력을 타지에서 영입해야 하는 실정이며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이 시급함.
- 전략적 신흥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대학 포함) 중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 우크라이나 국가과학원, 칭화대학, 허페이공업대학, 화둥이공대학 등 타 지역(국가) 소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가 전체의 40%에 달함.<sup>20)</sup>
- 특히 IT 분야 R&D는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술축적이 부족하여, 민간(기업) 부문에서 상당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I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술응용 분야의 공공부문 연구인력 풀(Pool)이 부족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 간 R&D 수준이 불균형한 상태이며, 역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광둥성 IT 산업에 이용되는 기술 중 85%는 해외특허 기술이며, IT 기업의 해외기술 의존도는 70% 이상임.

■ 미국, 독일 등 기술 선진국이 중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IT, LED,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을 중심으로 광둥성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단, 기술유출 등 관련 위험에도 대비해야 함.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대외무역연구부의 리지엔(李健) 부주임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 신흥산업 협력을 주제로 새로운 대화 창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화웨이(華爲), 상더

18) 广东省对外贸易经济合作厅(2011. 7. 26), 「广东省珠江三角洲地区与日本经贸合作交流会在东京成功举行」.

19) 李兴华(2010), 『战略性新兴产业基础知识』, 广东科技出版社.

20) 广东省科学技术厅(2011), 「广东省第一批战略性新兴产业核心技术攻关拟立项项目公示」.

(尙德), 화루이풍력(華銳風電) 등 협력 사례가 있음.<sup>21)</sup>

- 2012년 2월 초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기업대표단이 광둥성을 방문하여 ‘2012 중국·독일 경제포럼’에 참석하였고, 양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첨단장비 제조,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분야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 한국은 신성장 동력산업 중 IT 융합, LED 응용, 그린카 핵심부품(배터리 등)에 경쟁우위가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협력을 제안할 수 있음.
  - IT 융합의 핵심이 되는 무선통신 분야는 선도적 기술개발과 표준 확보가 중요하고, 중국의 경쟁력이 미흡한 분야임. 이에 한국과 광둥성은 차세대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당 기업 간 협력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린카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지 않던 전자업체들이 부품업체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며, 광둥성은 그린카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한국 전자업체에 큰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음. 한국은 빠른 시장 선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실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이 월등한 분야는 아니지만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주 타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광둥성과 공동 기술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기업간 제휴·협력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sup>22)</sup>
  - 2011년 한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 중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58.3%(1위)를 차지함. 업종별로는 정밀기계(25%), 전기전자(17%), 정보통신(6%), 자동차(6%) 순으로 반도체 외에도 IT 등으로 피해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LG디스플레이의 TFT 기술자료와 AMOLED 제품 공정도 및 원가정보를 유출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있었음.<sup>23)</sup>

■ 중국은 자국의 기술경쟁력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유치와 수입을 장려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자국 시장과 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구사하기도 함.

- 2011년 발표된 새로운 외상투자지도목록(外商投資指導目錄)이 2012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여기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설비,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IT,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장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sup>24)</sup>

21) 『中国经济时报』(2011. 4. 8), 「战略新兴产业向外资开放」.

22) 박인옥(2012. 2. 6), 「산업기술 유출 수사, 피해기업 지원 집중」, 『파이낸셜뉴스』.

23) 지홍구·이동인(2011. 12. 2), 「또 기술 빼간 중국법인 첫 입건」, 『매일경제』.

24) 『中国经济时报』(2011. 4. 8), 「战略新兴产业向外资开放」.

- 중국사회과학원의 독일학 전문가인 구쥘리(顾俊礼) 연구원은 “독일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자본투자를 요망하나, 다만 이를 위해 독일도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함.<sup>25)</sup>
- 2012년 4월 중국은 32인치 LCD 패널 수입우대관세율(3%)을 5%까지 높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중국기업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sup>26)</sup>
- o 중국 평면 TV 생산기업의 대부분은 한국과 대만산 LCD 패널을 구매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6대 TV 제조사의 한국 및 대만산 패널 구매 비중을 보면, 한국의 LG와 삼성이 각각 21.7%와 20.2%, 대만의 CHIMEI와 AUO가 30%, 21.9% 수준임.
- o 광둥성은 고부가가치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해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차세대 LCD 패널 생산 프로젝트 중 화싱광전(華星光電)은 8.5세대 LCD의 생산라인을, 차이홍그룹(彩虹集團), 중셴기술(中顯科技), 신리반도체(信利半導體)는 OLED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구축 예정 혹은 가동 중임.<sup>27)</sup> KIEP

25) Zhou Wa(2012. 2. 2), “Merkel visit to deepen bilateral relations,” *China Daily*.

26) 중국은 LCD 패널 중 32인치 이하는 관세율 5%를, 32인치 이상은 우대관세율인 3%를 적용하였으나 향후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 정부기관에 따르면 2012년 말, 더 나아가 새로운 (기존 5%에서 8~10%까지 높인) 관세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金羊网-新快报(www.ycwb.com)』 (2012. 2. 9), 「液晶面板进口关税或将上调」; 王珍 (2012. 2. 2), 「面板进口关税或提高 国产面板业迎利好」, 『第一财经日报』.

27) 广东省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1. 3. 10), 「广东省2011年促进战略性新兴产业加快发展行动方案」.